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p>05 무굴 제국(1526~1858)</p>	
<p>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①, 재위 1526~1530) : 티무르의 후손, 술레이만 1세의 지원, 북인도 진출, [] 전투(이브라힘 로디 격퇴, 1525), 건국([], 1526)
<p>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③, 재위 1556~1605) : 수라트 침공(1573), []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아그라(Agra) 천도 : 중앙 집권 체제 확립(행정 관료 조직과 지방 행정 구역 정비) : 종교적인 [] 정책 추진 : 만일 어떤 참된 진리가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왜 생긴 지 겨우 천 년 정도밖에 안 된 이슬람교와 같은 한 종교에만 진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 힌두교의 성지 순례 시 부과하던 통행세 폐지, [] 폐지(1579), 전쟁 포로를 이슬람교도로 강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제정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시도[힌두교도를 관료로 임명,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라지푸트족 출신 조다와 정략결혼, '조다와 아크바르')] • 샤자한(⑤, 재위 1627~1658) : [] 묘당 축조(아그라, 1631~1653) • [] (⑥, 재위 1658~1707) : [] 을 넘어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최대 영역 확보) : 이슬람 제일주의 지향 → [] 부활(1679), 힌두교 사원 파괴 ⇔ 라지푸트족(힌두 세력)의 반발, [] 의 저항(편자브 지방, 고빈드 싱 지도), [] 왕국 수립(시바지, 힌두의 독립 국가(스와라지) 표방, 1674) : 비비 카 마크바라(가난한 타지마할) 건축(아우랑가바드, 1678)
<p>쇠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동맹의 반란(중부 인도, 1720~1818),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이 침투하여 세력 확장 : 나는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항구에 명하여 영국의 모든 상인들을 내 친구의 신민으로 맞이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곳에서 살겠다고 선택하든지, 그들은 환대를 받고 만족스럽고 안전한 거처를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기를 원하든지 그들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떤 항구에 도착하든지 포르투갈이든 어느 누구든 그들의 평화를 감히 깨지 못할 것입니다. [해설] 자료는 무굴 제국의 자한기르 황제(④, 재위 1605~1627)가 1618년 영국의 제임스 1세에 보낸 서신(書信)의 일부이다. 17세기 전반 인도에 진출한 영국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제압하고 뭄바이, 콜카타, 마드라스 등에 근거지를 확보하여 교역을 확대하였다. 17세기 후반에 인도에 진출한 프랑스는 남인도와 벵골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영국과 대립하였다.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양 무역 발달(면직물·향신료 등 수출) → 신향로 개척 이후 서양 상인 진출
<p>인도 문화-이슬람 문화의 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 힌두어에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등이 합쳐진 [] 가 널리 사용됨, 공식 문서나 외교에서는 [] 사용 • 종교(이슬람교 발전, 대체로 힌두교 등의 다른 종교 인정) : [] [나나크 창시, 편자브 지방에서 발전, 유일신,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반대, 남성들의 성씨로 '싱' 사용, 황금 사원(신의 집, [])] • 건축 : [] (힌두 양식, 이슬람 양식, 페르시아 양식이 혼재), 무굴 회화 발달(페르시아 세밀화와 인도 양식의 조화)